

농진청, 돼지 생식기·호흡기 증후군 발생주의보 발령

—농촌진흥청—

농촌진흥청은 지난 4월 19일 돼지 생식기호흡기 증후군 발생주의보를 발령했다.

돼지 생식기·호흡기 증후군

돼지 생식기 호흡기 증후군은 임신한 돼지에 감염되면 유산, 사산 및 태아의 미이라변성 등 번식장애를 나타내고, 수태지가 감염되면 감염후 약 90일 동안 바이러스가 정액과 함께 배출하여 주요 감염원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, 정액의 질을 급격히 저하시키는 등 피해가 큰 질병입니다. 또한 모든 일령의 돼지에서 호흡기증세를 나타내며, 호흡기 면역기능을 저하시켜 다른 세균성 질병과 혼합감염될 때에는 양돈농에 더욱 큰 피해를 입히는 질병입니다.

현재 양돈장에서의 야외감염 정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, '95년 12% 정도의 양성률을 보이던 것이 최근 들어서는 경기, 강원, 경남, 전남 등에서 의뢰된 가검물청을 대상으로 조사해본 결과, 30% 이상의 항체 보유를 나타내고 있어 이 질병이 급속히 전파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

따라서 모든 농가에서는 돼지 생식기 호흡기 증후군에 대한 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.

1. 주요증상

- 초기에는 식욕이 떨어지고, 높은 열이 난다.
- 임신한 돼지는 유산, 사산 및 미이라 태아가 발생한다.
- 매우 허약한 새끼돼지가 많이 발생하고 젖먹이 새끼돼지의 폐사율이 20% 내외로 증가한다.
- 수태지에서는 정액의 질이 떨어지고, 산자수가 줄

어든거나 수태율이 저하돼 종부횟수가 늘어난다.

- 호흡기질병의 발생이 예전보다 늘어나거나 심해지고 육성, 비육단계의 돼지에서 만성적인 호흡기 감염이 지속된다.

2. 예방대책

- 감염된 수태지는 종부시 정액을 통하여 바이러스를 모돈에게 전파하므로 수태지 항체 및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여 양성돈인 돼지를 도태하거나 격리 사육해야 한다.

- 감염된 돼지와외의 접촉에 의해서 건강한 돼지가 전파되므로 외부에서 돼지를 구입할 경우에는 생식기 호흡기 증후군이 발생하지 않은 양돈장에서 구입한다.

- 새로 구입한 돼지는 약 30일 정도 격리사육하면서 관찰을 철저히 한다.

- 외부인 또는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, 부득이 출입시에는 반드시 소독 등을 한후 출입토록 한다.

- 현재 예방약이 시판되고 있으므로 감염률이 높은 양돈장이나 임상증상이 현저한 양돈장에서는 예방접종을 실시한다.

- 예방접종을 전체 돼지에 다 실시하기 어려울 때에는 10~20% 정도의 돼지에게만 접종을 하여도 효과를 볼 수 있다.

- 돈사가 여유가 있을 때에는 약 1~2주간 돈사를 비우고 소독한 후 몇몇 새끼돼지를 입식하고, 다시 소독된 비육사로 옮기면 질병발생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.

- 감염이 의심되는 돼지는 신속히 수의과학연구소나 각 시·도 가축위생시험소에 검사를 의뢰하여 진단을 받도록 한다.